

본 연구는 신명에 대한 지난 논의들(한민, 한성열, 2007a; 2007b)들을 통해 구조화된 신명 경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신명경험을 측정할 척도를 개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신명경험을 구조화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명경험과 기타 긍정적 지표를 나타내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1. 신명척도의 개발

신명경험 검증모형의 구성

신명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전에, 우선 신명경험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한민, 한성열(2007b)은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의 분석틀을 이용한 신명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신명경험의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모형은 신명경험의 특성과 양적 방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가설적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들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설적 모형을 수정해야 할 첫 번째 필요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신명경험의 통합모형(그림 1)에서의 중재적 조건인 ‘감정공유 및 공경험’은 신명의 세 유형의 중재적 조건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통합한 것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감정공유라는 성격을 갖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신명의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달리 나타난다.

전환적 사건에 의한 신명에서의 감정공유는 회복된 자기(혹은 집단)의 가치를 타인들에게 확인받으려는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는 집단구성원들과의 공경험이 강조된다. 그리고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의 감정공유는 자신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즉 본 연구에서 검증해야 하는 신명경험의 가설적 모형은 이러한 유형들을 통합한 통합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구성하는 각 범주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항으로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명경험의 특성에 기인한다. 앞선 연구에서 신명경험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들을 추출하고 그 구조를 이론화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신명은 문화적으로 습득된 경험체계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신명을 경험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들과 구조가 명확하게 인식된다고는 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질적 연구에서 추출한 조건들 중에 맥락적 조건에서의 ‘과거의 부정적 자기(혹은 집단) 인식’이라든지, 중재적 조건인 ‘감정의 공유 및 공경험’ 등은 신명을 경험한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명명한 것이지 신명을 경험하는 이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명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 질적연구의 결과 구성된 이론적 모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여 그림 2와 같은 검증모형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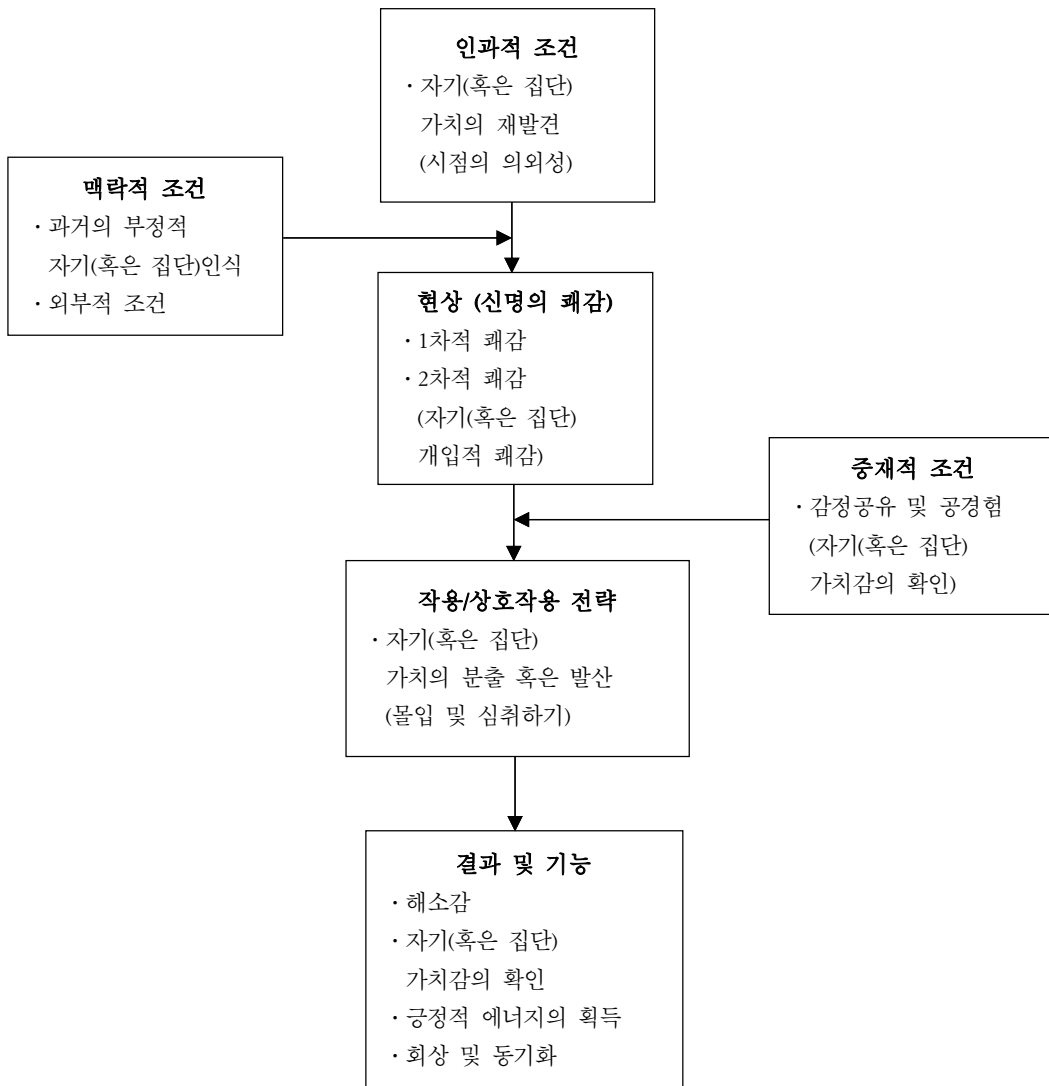


그림 1. 신명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하였다.

그림 2에 따르면 그림 1의 모형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맥락적 조건의 ‘과거의 부정적 자기인식’과 중재적 조건인 ‘공감 및 공경험’을 넓은 의미의 신명의 감정으로 포함시켰고, 맥락적 조건의 하나인 외부적 조건은 신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신명 경험의 특성상, 신명의 감정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신명 행동뿐 아니라 신명의 감정도 신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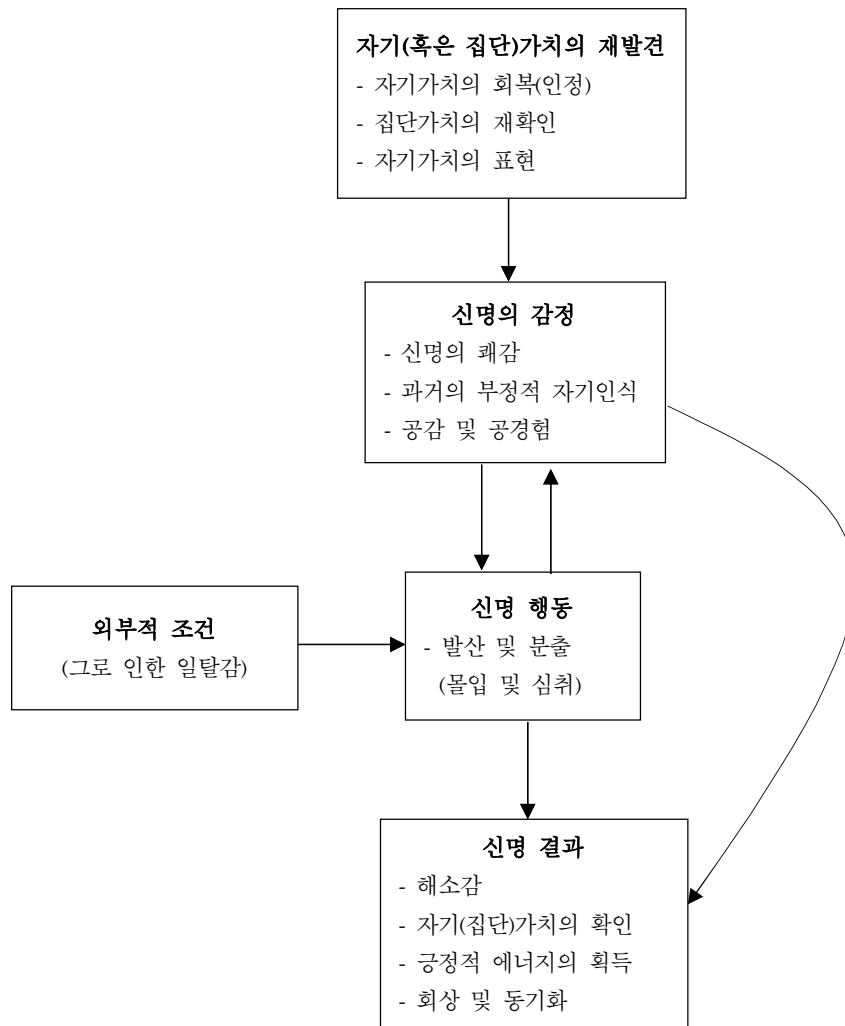


그림 2. 신명경험의 검증모형

방 법

조사대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온라인 리서치 기관(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표본수집을 의뢰하여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회사(엠브레인)에 인터넷 패널로 등록된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 2주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2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각각 120명 이상에게 실시되었다.

응답시간은 평균적으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사례 중 전체 응답자의 평균반응시간에 훨씬 못 미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걸러내기 위한 3개의 문항에 잘못 응답한 122명의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척도개발 표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164 49.2
	여	169 50.8
연령대 M=39.3 SD=11.3	20대	83 24.9
	30대	75 22.5
	40대	93 27.9
	50대	82 24.6
직업	학생	40 12.0
	회사원	127 38.1
	자영업	39 11.7
	주부	80 24.0
	기타	47 14.1

자료를 제외한 총 56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은 SPSS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표본 분할방식을 통해서 6:4의 비율로 분할하여, 이중 333(59.1%)명은 척도개발을 위해, 나머지 230(40.9%)명의 자료는 구조화 및 타당화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할한 표본들은 교차분석을 통해 동질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성차($\chi^2=.001, p=.978$)와 연령대($\chi^2=2.363, p=.501$) 및 직업($\chi^2=2.329, p=.676$)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척도구성에 사용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예비문항

우선, 그림 2의 신명경험 모형을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한 예비문항을 제작

하였다. 예비문항들은 질적연구(한민, 한성열, 2007b)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인들의 신명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의 구조와 명칭은 수정한 신명경험 모형(그림 2)을 따랐다.

신명의 인과조건에 해당하는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은 “나는 () 할 때, 신명이 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들로 구성되었으며, ‘자기가치의 인정’ 9문항, ‘집단가치의 재발견’ 10문항, ‘자기가치의 표현’ 16문항 등, 총 35문항을 제작하였고, 맥락적 조건 중 하나인 ‘외부적 조건’은 외부적 조건의 존재와 관련되는 5문항과 외부적 조건으로 인한 일탈감 7문항의 12문항을 제작하였다.

‘신명의 감정’은 “나는 신명이 나면 () 와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들로 이루어졌으며, 신명의 쾌감에 해당하는 15문항(1차적 쾌감 8문항, 자기관여적 쾌감 7문항)과 ‘공감 및 공경험’의 감정 8문항, ‘과거의 부정적 자기인식’과 관련한 회상적 감정 7문항 등 총 30문항이었다.

‘신명의 행동’은 “나는 신명이 나면 () 와 같은 행동을 한다”에 대한 응답들로 구성되었으며, ‘분출행동’ 8문항과 ‘몰입 및 심취’ 10문항의 18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신명의 결과’는 “나는 신명나는 경험 후에 ()해진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소감’ 10문항, ‘자기(혹은 집단)가치감의 확인’ 및 ‘긍정적 에너지의 획득’에 해당하는 ‘친밀감 및 동질감’과 ‘활력 및 능력감’이 15문항, ‘회상 및 동기화’ 6문항 등, 총 31문항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예비문항 126문항을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박사과정 1인(남, 33세), 석사과정 2인(여, 28세, 24세))에게 평가하

도록 하여 모호한 표현이나 부적절한 차원 등을 수정하였고, 하위요인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배열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막기 위한 문항 3개를 문항들 사이에 삽입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준거를 사용하여 각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당 하위차원에서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이상 .85미만인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둘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의 사각회전(Direct Oblimin) 결과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차원에 부하하면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표 2. 신명 인과조건 문항의 pattern matrix

문 항	M (SD)	요인 1	요인 2	요인 3
내가 한 일을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4.25 (.72)	.884		
나의 진정한 가치를 남들이 알아줄 때	4.28 (.76)	.885		
나의 능력(실력, 가치)이 남들을 감동시켰을 때	4.30 (.75)	.588		
나의 실력을 좋게 평가받았을 때	4.16 (.73)	.768		
내가 하려고 했던 바를 남들이 이해해 줄 때	4.00 (.78)	.581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이 들 때	3.37 (.96)		.723	
어떤 집단에 속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때	3.49 (.89)		.754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한다는 느낌이 들 때	3.52 (.89)		.889	
나의 마음을 남들이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4.01 (.78)		.466	
어떤 집단이나 단체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할 때	3.34 (.92)		.765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	3.48 (.85)		.571	
나의 능력(실력, 가치)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을 때	4.31 (.72)			.559
나의 능력(실력, 가치)을 남들에게 최대한 보여줄 때	4.32 (.74)			.602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을 할 때	4.52 (.67)			.878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때	4.20 (.79)			.581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 냈을 때	4.45 (.73)			.698
고유치(eigen value)		5.677	4.505	5.007
설명변량(%)		42.16	11.56	4.24
Cronbach's α		.85	.86	.90
요인평균(표준편차)		4.20(.63)	3.54(.69)	4.36(.58)

*요인 1: 자기가치의 인정, 요인 2: 우리의식의 확인, 요인 3: 자기가치의 표현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요인분석의 결과와 실제 문항을 대조하여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은 제외하였다.

신명 인과조건: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

총 35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1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 인과조건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57.96%였다. 전체변량 중에서 1요인은 42.16%를, 2요인은 11.56%를, 3요인은 4.24%를 설명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각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에서 .90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1요인(5문항)은 자신의 능력이나 남들에게 인

정받는 경우를 의미하여 '자기가치의 인정'이라 명명하였고, 2요인(6문항)은 '우리'라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감정이 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우리의식의 확인'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3요인(5문항)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거나 표현하는 경우를 뜻하여 '자기가치의 표현'이라 명명하였다.

신명 맥락조건: 외부적 조건

맥락조건은 예비문항 12문항 중 9문항이 선정되었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신명의 맥락조건은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53.68%였다. 전체 변량 중에서 요인 1은 41.54%를, 요인 2는 12.14%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

표 3. 신명 맥락조건 문항의 pattern matrix

문항	M (SD)	요인 1	요인 2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	3.61 (.92)	.671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3.86 (.84)	.751	
무슨 일을 해도 허용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	3.57 (.95)	.768	
체면치레를 하지 않아도 될 때	3.36 (.96)	.698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때	3.53 (1.00)	.603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2.84 (.96)		-.542
큰 소리의 음악이 들려올 때	3.06 (1.05)		-.870
흥분되는 반복적인 리듬이 계속될 때	3.11 (.99)		-.972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3.59 (.89)		-.418
고유치(eigen value)		3.249	2.894
설명변량(%)		41.54	12.14
Cronbach's α		.83	.82
요인평균(표준편차)		3.59 (.72)	3.15 (.78)

*요인 1: 일탈감, 요인 2: 외부조건

도 계수는 .83과 .8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요인(5문항)은 평소와는 달리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탈감’이라 명명하였으며, 2요인(4문항)은 당시의 분위기 등 외부적 조건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외부적 조건’이라 명명하였다.

신명의 감정

30개의 예비문항 중 최종적으로 15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1.65%였다(표 4).

표 4에 따르면, 신명의 중심현상 및 맥락적 조건의 일부와 중재적 조건을 포괄하는 신명의 감정은 3요인으로 구성되며, 1요인은 전체 변량의 51.98%를 설명하고, 2요인은 5.52%, 3요인은 4.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는 .86에서 .91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1요인(6문항)은 자신(혹은 집단)의 가치와 관

표 4. 신명 감정 문항의 pattern matrix

문항	M (SD)	요인 1	요인 2	요인 3
내(우리)가 이뤄낸 일을 생각하니 감동적이다	3.70(.86)	.684		
내(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3.73(.88)	.803		
나(우리)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알린 것이 뿌듯하다	3.80(.90)	.830		
나(우리)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서 기쁘다	3.77(.92)	.547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이 보상받는 느낌이다	3.50(.98)	.635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내(우리)가 자랑스럽다	3.78(.82)	.825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적이다	3.38(.89)	.307		.548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이 감동적이다	3.42(.82)			.843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같아서 기쁘다	3.29(.79)			.468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 뭔가를 한다는 사실이 감격적이다	3.46(.88)			.744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다	3.14(.84)			.391
견잡을 수 없이 흥분된다	3.10(1.00)	.353	.557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3.42(1.09)		.690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쁘다	3.19(1.02)		.809	
훨훨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3.13(1.13)		.862	
고유치(eigen value)		6.900	5.783	5.760
설명변량(%)		51.98	5.52	4.15
Cronbach's α		.91	.87	.86
요인평균(표준편차)		3.71(.74)	3.21(.90)	3.34(.68)

*요인 1: 2차적 쾌감, 요인 2: 1차적 쾌감, 요인 3: 공감

련된 감정으로 ‘2차적 쾌감’이라 명명하였으며, 2요인(4문항)은 신명 상태의 일차적인 느낌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적 쾌감’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 3요인(5문항)은 그러한 쾌감과 더불어 그 순간을 다른 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으로 ‘공감’이라 명명하였다.

신명 행동

문항분석 결과, 18개의 예비문항 중에 최종적으로 7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55.03%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신명의 행동은 2요인으로 구성된다. 1요인은 전체 변량의 47.08%를, 2요인은 7.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는 .81, .77

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1요인(4문항)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분출’이라 명명하였고, 2요인(3문항)은 당시의 느낌 및 행동에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몰입’이라 명명하였다.

신명 결과

문항분석 결과 31개의 예비문항 중에서 최종적으로 21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6.04%였다(표 6).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의 결과는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1요인은 전체 변량의 56.97%를, 2요인은 4.07%를 설명하였으며, 3요인은 2.75%, 4요인은 2.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84에서 .93으로 양호한 수준이

표 5. 신명 행동 문항의 pattern matrix

문항	M (SD)	요인 1	요인 2
그 상황에 더욱더 빠져들려고 애쓴다	3.17(.91)		-.587
그 순간에 하고 있는 행위에 몰두한다	3.47(.87)		-.898
내 자신의 느낌에 빠져든다	3.35(.91)		-.565
큰소리로 웃고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2.95(1.09)	.651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껴안고 필쩍필쩍 땀다	2.26(1.10)	.728	
현재의 느낌, 감정을 최대한 표현한다	3.39(1.01)	.653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나타낸다	3.17(.96)	.687	
고유치(eigen value)		2.870	2.640
설명변량(%)		47.08	7.94
Cronbach's α		.81	.77
요인평균(표준편차)		2.94(.83)	3.33(.74)

*요인 1: 분출, 요인 2: 몰입

표 6. 신명 결과 문항의 pattern matrix

문항	M (SD)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나쁜 감정들이 씻겨 내려간 듯하다	3.48(.97)			.900	
현실을 초월한 느낌이 든다	3.02(1.05)			.419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3.47(.88)			.630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2.92(1.04)			.341	
함께 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3.51(.92)		-.677		
함께 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3.59(.87)		-.684		
함께 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3.41(.88)		-.901		
함께 한 사람들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3.39(.91)		-.856		
함께 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3.43(.85)		-.759		
함께 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포용력이 생겼다	3.56(.82)		-.648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3.76(.93)	.437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3.67(.98)	.372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	3.81(.89)	.379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3.55(.91)	.836			
내 자신이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3.83(.80)	.503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3.77(.89)	.620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3.58(.93)	.483			.379
같은 경험을 또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3.83(.97)				.686
다시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75(.94)				.431
가끔 당시의 일을 떠올리게 된다	3.79(.83)				.313
그런 일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82(.96)				.652
고유치(eigen value)		9.014	10.016	7.594	7.896
설명변량(%)		56.97	4.07	2.75	2.25
Cronbach's α		.93	.93	.84	.85
요인평균(표준편차)		3.66 (.75)	3.48 (.75)	3.22 (.81)	3.80 (.77)

*요인 1: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요인 2: 동질감, 요인 3: 해방감, 요인 4: 동기화

었다.

1.요인(7문항)은 자신감 및 적극적 태도와 관

런 있으며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라 명명하였고, 2요인(6문항)은 신명을 함께 경험한 이들에 대한 친밀감 및 동질감을 의미하여 ‘동질감’이라 명명하였다. 3요인(4문항)은 감정의 해소 및 해방감을 뜻하여 ‘해방감’으로, 4요인(4문항)은 다음에 다시 신명을 경험하고 싶은 바람과 의도를 의미하여 ‘동기화’로 명명하였다.

연구 2. 신명경험의 실증적 검증

다음으로, 앞서 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 신명경험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예상되는 변인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검증을 위해 수정한 모형을 근거로 변인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가설적 관계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의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인과조건과 현상의 관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신명의 인과조건은 ‘자기가치의 인정’, ‘우리의식의 확인’ 및 ‘자기가치의 표현’이며, 현상은 신명의 감정 즉, ‘1차적 쾌감’, ‘2차적 쾌감’, ‘공감’이다. 근거이론에서 인과조건은 현상을 야기하며, 이러한 내용을 가설의 형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설 1. 자기가치의 인정은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우리의식의 확인은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자기가치의 표현은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관계

신명의 감정과 행동은, 각각 근거이론에서의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한다. 근거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현상은 다시 영향을 받는다.

신명경험에서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현상)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출행동을 하며 그 상황에 몰입한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 신명의 감정은 다시 강화되고, 이와 같이 신명의 감정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설 형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4. 신명의 감정은 신명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신명 행동은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맥락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관계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는 조건들이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수정모형에서 신명의 맥락적 조건은 ‘외부적 조건’ 및 ‘외부적 조건

에서 비롯된 일탈감'이다. 이들은 신명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신명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 6. 일탈감은 신명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외부적 조건은 신명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상과 결과의 관계

신명의 결과는 '해방감', '동질감',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동기화' 등을 들 수 있다. 근거이론에 따르면, 결과는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 8. 신명의 감정은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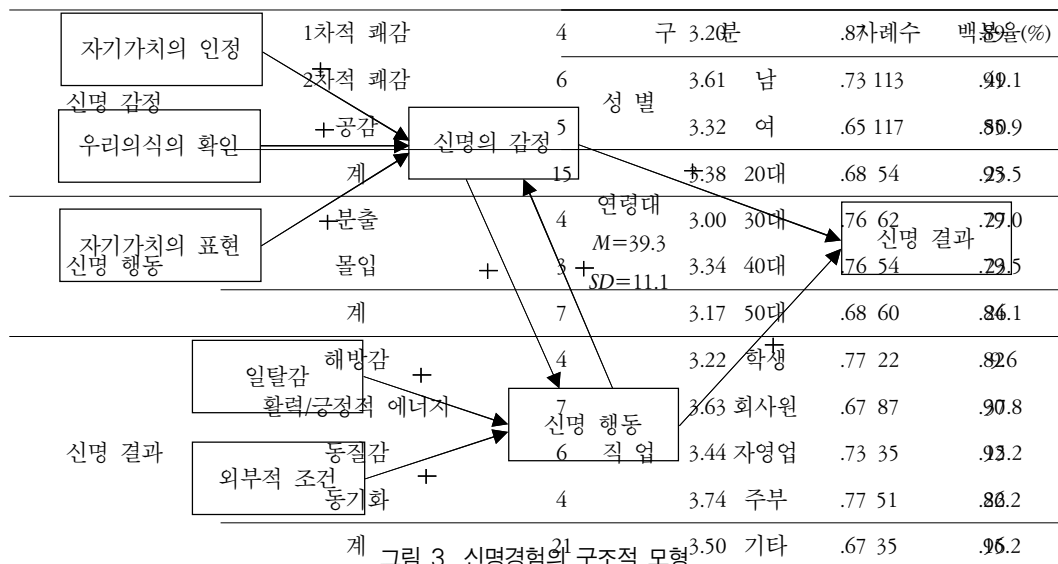
가설 9. 신명 행동은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표 8. 척도별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

척도명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신명 인과조건	자기가치의 인정	5	4.18	.72
	우리의식의 확인	6	3.50	.65
	자기가치의 표현	5	4.23	.68
	계	16	3.99	.59
신명 맥락조건	일탈감	5	3.61	.70
	외부적 조건	4	3.02	.79
	계	9	3.32	.64

표 7.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타당화 표본)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자기가치의 인정	4	3.20	.84	.89
신명 감정	6	3.61	.73	.91
우리의식의 확인	5	3.32	.65	.80
신명 행동	7	3.38	.68	.93
신명 결과	7	3.63	.67	.90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

신명경험의 실증적 검증 및 타당화 작업을 위해, 척도개발에 사용한 사례들을 제외한 23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연구도구

신명경험의 실증적 구조화를 위해 앞서 개발한 신명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명경험 척도는 신명 인과조건 16문항, 신명 맥락조건 9문항, 신명 감정 15문항, 신명 행동 7문항, 신명 결과 21문항 등 총 6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 8에 정리하였다.

분석 절차

신명 경험의 구조적 모형(그림 3)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Lisrel 8.54를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는 종속변수 간에 쌍방향 혹은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축차모형(recursive model)과 두 변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쌍방향 인과관계(reciprocal causation) 혹은 셋 이상의 변수 간에 영향력이 순환하며 원래의 변수로 돌아오는 순환적 인과관계(feedback loops)가 존재하

표 9. 모형의 적합도 지수

	GFI	AGFI	CFI	RMR	RMSEA
추정치	.96	.86	.98	.027	.11

는 비축차모형(nonrecursive model)이 있다¹⁾.

본 연구의 신명 경험 모형은 신명의 감정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예상되므로 비축차모형에 해당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GFI, AGFI, CFI, RMR, RMSEA를 사용하였다.

결 과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9와 같이 산출되었으며,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우선 GFI는 .96으로 수용기준 .90보다 높았으며, AGFI는 .86로 일반적 수용기준 .90보다 약간 낮았으나 GFI가 양호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CFI는 .98로 역시 수용기준 .90을 충족하였고, RMR은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27로 조건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RMSEA은 일반적인 수용기준 .08보다 다소 높은 .11로 나타났다. RMSEA의 값은 본 연구의 모형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나,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들로 미루어 본 연구의 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1)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 모델: SIMPLIS & AMOS. 서울: 석정. 133-134쪽.

표 10.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값)	R^2
자기가치의 인정 → 신명의 감정	.14 (2.19)*	.61
우리의식의 확인 → 신명의 감정	.11 (1.96)*	
자기가치의 표현 → 신명의 감정	.17 (2.49)**	
신명 행동 → 신명의 감정	.51 (6.14)***	
일탈감 → 신명 행동	.08 (1.26)	.38
외부적 조건 → 신명 행동	.29 (4.90)***	
신명의 감정 → 신명 행동	.19 (1.54)†	
신명의 감정 → 신명 결과	.62 (11.02)***	.63
신명 행동 → 신명 결과	.21 (3.7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모형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우선 자기가치의 인정($\beta=.14, p<.05$), 우리의식의 확인($\beta=.11, p<.05$), 자기가치의 표현($\beta=.17, p<.05$)은 모두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신명의 감정은 신명 행동에($\beta=.19, p<.10$), 신명 행동은 신명의 감정에($\beta=.51, p<.001$)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가설 4, 5는 지지되었다.

세 번째로, 일탈감($\beta=.08, p>.05$)은 신명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적 조건($\beta=.29, p<.001$)은 신명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가설 7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명의 감정($\beta=.62, p<.001$)과 신명 행동($\beta=.21, p<.001$)은 신명의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8, 9는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자기가치의 인정과

우리의식의 확인, 자기가치의 표현 등이 신명을 경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명 경험 당시의 분위기는 신명의 행동, 즉 몰입 및 분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신명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일탈감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명의 감정이 신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beta=.19, p<.10$), 신명 행동은 신명의 감정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beta=.51, p<.00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명의 감정이 신명을 촉발하는 일차적인 원인(자기가치의 인정, 우리의식의 확인, 자기가치의 표현)에서 비롯된 감정 뿐 아니라 신명 상태에서의 행동들로 야기된 감정들 역시 포함하며, 총체적인 신명 경험에 있어서 행동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신명 행동보다는 신명의 감정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명 경험이 이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는 몰입 및 분출 행동뿐만 아니라 신명의 감정에 포함되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관련한 의미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신명과 기타 긍정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유는 신명 경험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 신명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신명이 기타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3. 신명의 개념적 타당화

신명은 한국 문화에서 경험되는 긍정적 감정경험으로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본 연구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명 경험이,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해방감’,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 ‘동질감’ 및 ‘동기화’ 이외에, 다양한 긍정적 지표들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 판단

신명과 기타 긍정적 변인과의 예상되는 관련성

우선, 신명의 결과 중 ‘활력 및 긍정적 에너지’는 신명 경험에 의해 고양된 능력감 및 자신감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자기가 치감과 관련 있는 자아존중감 및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의 지표가 되는 주관적 안녕감이거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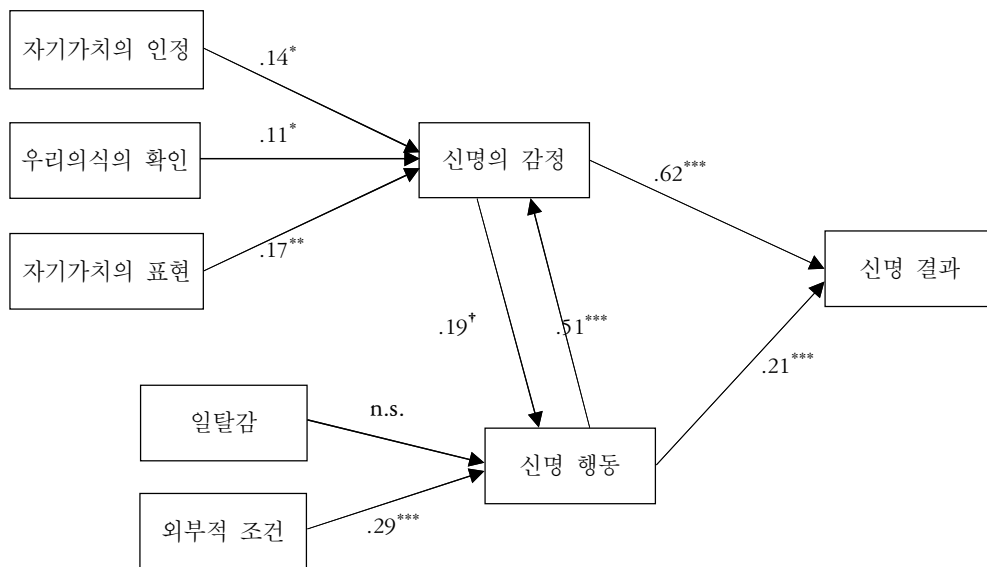


그림 4. 신명경험의 구조적 모형(확정)

그리고 신명을 함께 경험한 이들에 대한 애착 및 친밀감 향상을 의미하는 ‘동질감’은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애착 및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명 경험을 회상하고 다시 신명을 경험하기 바라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기화’의 측면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이전의 통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기가치의 표현’이 신명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과 실제로 일반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에서 신명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신명 경험은 예술적 능력 혹은 창의성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명과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많은 변인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자기지각을 선택하여 신명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방 법

조사대상

신명 경험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데 사용한 230명의 자료를 다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7과 동일하다.

연구도구

신명경험

신명 감정+신명 행동.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신명경험 척도 중에서 신명의 감정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였다.

신명 경험의 빈도. 신명의 인과조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신명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에서부터 ‘2주에 1번보다 자주 경험한다’까지 7단계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였다(3문항). 신명 경험의 빈도를 나타내는 이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10문항)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하고 유성경(2002)이 번역, 수정한 자아탄력성 척도(14문항)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창의성에 대한 자기지각

Pollick과 Kumar(1997)의 GMCC(Global Measure to assess Creativity Capacity)를 김혜숙(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GMCC는 자기 자신의 창의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Campbell(1981)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9문항)

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8문항의 정서형용사 리스트와 포괄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다.

삶의 만족도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5문항)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였다.

결 과

신명 경험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의 점선 부분에 따르면, 개인이 신명을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는가를 의미하는 ‘신명 감정+행동’은 자아존중감과 .424($p<.001$)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r=.355, p<.001$) 및 삶의 만족도($r=.255, p<.001$)와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는 .504($p<.001$)의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창의성에 대한 자기지각 사이에서도

.377($p<.001$)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신명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를 의미하는 ‘신명경험 빈도’ 역시 이들 변인들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그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251($p<.001$), 주관적 안녕감과 .302($p<.001$), 삶의 만족도와 .270($p<.001$)이었으며, 자아탄력성과는 .311($p<.001$), 창의성에 대한 자기지각과는 .267($p<.001$)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명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높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수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을 보다 창의적이라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신명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신명을 자주 경험하고, 또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관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신명 경험과 기타 긍정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

	1	2	3	4	5	6
1.신명감정+행동	1.000					
2.신명경험 빈도	.243***	1.000				
3.자아존중감	.424***	.251***	1.000			
4.자아탄력성	.504***	.311***	.565***	1.000		
5.주관적 안녕감	.355***	.302***	.508***	.501***	1.000	
6.삶의 만족도	.255***	.270***	.431***	.406***	.678***	
7.주관적 창의성	.377***	.267***	.528***	.622***	.399***	.378***

*** $p<.001$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신명 경험의 전체적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신명에 대한 질적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신명 경험의 과정과 그에 따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신명경험 척도를 구성하였다. 신명 경험 척도는 신명의 원인에 해당하는 인과조건(16문항)과 맥락조건(9문항) 25문항, 그리고 신명의 상태를 측정하는 감정(15문항)과 행동(7문항) 22문항, 마지막으로 신명의 결과를 나타내는 21문항 등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개발한 신명 경험 척도를 바탕으로 신명 경험의 구조를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연구 2).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명의 인과조건에 해당하는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인정($\beta = .14, p < .05$)’과 ‘우리의식의 확인($\beta = .11, p < .05$)’, ‘자기가치의 표현($\beta = .17, p < .01$)’은 신명의 쾌감과 주위 사람들과의 공감을 의미하는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의 맥락적 조건인 외부적 조건($\beta = .29, p < .001$)은 신명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외부적 조건으로 인한 일탈감의 신명행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신명의 감정($\beta = .19, p < .10$)은 분출 및 몰입이라는 신명행동에, 신명행동($\beta = .51, p < .001$)은 다시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신명의 감정($\beta = .62, p < .001$)과 신명행동($\beta = .21, p < .001$)은 신명의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형 검증의 결과, 일탈감에서 신명행동으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 신명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한편 일탈감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명의 감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신명 행동($r = .73, p < .001$)에 이미 일탈적 행동으로 인한 쾌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신명 경험의 특성(즉, 문화적으로 학습된 경험체계)에 의해서 과정에 대한 인식 없이 자동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신명경험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쾌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쾌감에서 이어지는 행동들과 그러한 총체적 상황으로의 몰입이 다시 쾌감을 증폭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개인이 신명을 경험한 빈도와 신명 경험의 정도(감정+행동)와 기타 긍정적 의미를 갖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명을 경험한 빈도와 신명 경험의 정도가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자기가치감과 일상적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연구 3).

이와 같은 결과들에 대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신명 경험의 과정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신명에 대한 이전의 논의들은 연구자의 통찰, 혹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일부 개인의 경험 등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신명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신명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인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신명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즉, 신명 경험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였다는 사실은 신명경험이 어떠한 요소에 의해 구성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이론을 구축하였다는 뜻이며, 실증적 방법을 통해 신명과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명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신명이 다른 여러 분야들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 변인들 외에도, 신명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신명은 문화적 감정 경험 체계이며, 특정한 사건 혹은 계기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감정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한민, 한성열, 2007b). 따라서 신명은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성질이 아닐 뿐 아니라, 언어로써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한, 많은 의미와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명확한 시간적 과정을 따른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동안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경험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검증한 내용은 신명 경험의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러한 신명경험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신명 개념이 보다 심도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명개념이 적용될 관련 분야의 성격에 맞는 특정 신명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구조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그러한 적용에 앞선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 김혜숙 (1999). 창의성 진단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3(4), 269-303.
- 유성경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6(4), 189-206.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 모델: SIMPLIS & AMOS. 서울: 석정
- 한민, 한성열 (2007a). 신명에 대한 문화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83-103.
- 한민, 한성열 (2007b). 신명의 개념화 및 구조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279-306.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Diner, E., E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9.
- Pollick, M. F., & Kumar, V. K. (1997). Creativity Style of Supervising Managers. *Journal of Creativity Behavior*, 31(4), 260-27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1차원고 접수: 2008. 4. 8.

수정원고접수: 2008. 5. 22.

최종게재결정: 2008. 6. 6.

A quantitative study of validating ‘Shinmyeong’

Min Han

Seongyul Han

Korea University

Present research was planned for validating the concept of Shinmyeong.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ose purposes. First, study 1, the Shinmyeong experience scale was developed by factor analysis with data of 333 participants. The scale was made of 68 items(16 items for causal conditions, 9 items for contextual conditions, 15 items for emotion, 7 items for behavior, 21 items for effects). Second, study 2,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hinmyeong was verified by path analysis with data of 230 participants. All path coefficients except for one(from ‘feeling of departure from everyday life’ to ‘behavior’) were significant, so hypothetical relations of variables which derived from qualitative analysis were verified by quantitative analysis. Thir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validate the concept of Shinmyeong by relations between positive variables and Shinmyeong experience. Shinmyeong experience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 esteem, self resiliency,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of life.

Key words : validating, Shinmyeong, development of scale, structural equation model, correlations

부록.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자기인정	1.00																
2. 우리의식	.57 ^{***}	1.00															
3. 자기표현	.78 ^{***}	.51 ^{***}	1.00														
4. 일탈감	.48 ^{***}	.47 ^{***}	.56 ^{***}	1.00													
5. 위부조건	.34 ^{***}	.51 ^{***}	.38 ^{***}	.45 ^{***}	1.00												
6. 1차해감	.38 ^{***}	.34 ^{***}	.36 ^{***}	.30 ^{***}	.41 ^{***}	1.00											
7. 2차해감	.52 ^{***}	.43 ^{***}	.55 ^{***}	.33 ^{***}	.44 ^{***}	.73 ^{***}	1.00										
8. 공감	.52 ^{***}	.56 ^{***}	.48 ^{***}	.38 ^{***}	.50 ^{***}	.74 ^{***}	.78 ^{***}	1.00									
9. 신명감경	.51 ^{***}	.47 ^{***}	.50 ^{***}	.36 ^{***}	.49 ^{***}	.92 ^{***}	.91 ^{***}	.91 ^{***}	1.00								
10. 분출	.28 ^{***}	.32 ^{***}	.27 ^{***}	.27 ^{***}	.40 ^{***}	.64 ^{***}	.56 ^{***}	.60 ^{***}	.66 ^{***}	1.00							
11. 몰입	.32 ^{***}	.36 ^{***}	.30 ^{***}	.27 ^{***}	.44 ^{***}	.64 ^{***}	.53 ^{***}	.55 ^{***}	.64 ^{***}	.58 ^{***}	1.00						
12. 신명 행동	.33 ^{***}	.38 ^{***}	.32 ^{***}	.31 ^{***}	.47 ^{***}	.72 ^{***}	.62 ^{***}	.65 ^{***}	.73 ^{***}	.89 ^{***}	.89 ^{***}	1.00					
13. 해방감	.36 ^{***}	.46 ^{***}	.39 ^{***}	.40 ^{***}	.47 ^{***}	.70 ^{***}	.63 ^{***}	.64 ^{***}	.72 ^{***}	.55 ^{***}	.51 ^{***}	.59 ^{***}	1.00				
14. 에너지	.47 ^{***}	.55 ^{***}	.49 ^{***}	.30 ^{***}	.45 ^{***}	.63 ^{***}	.72 ^{***}	.70 ^{***}	.74 ^{***}	.56 ^{***}	.51 ^{***}	.60 ^{***}	.79 ^{***}	1.00			
15. 동질감	.47 ^{***}	.58 ^{***}	.45 ^{***}	.32 ^{***}	.48 ^{***}	.57 ^{***}	.68 ^{***}	.75 ^{***}	.72 ^{***}	.56 ^{***}	.52 ^{***}	.61 ^{***}	.75 ^{***}	.87 ^{***}	1.00		
16. 동기화	.39 ^{***}	.39 ^{***}	.39 ^{***}	.19 ^{***}	.32 ^{***}	.63 ^{***}	.63 ^{***}	.63 ^{***}	.69 ^{***}	.55 ^{***}	.60 ^{***}	.63 ^{***}	.72 ^{***}	.76 ^{***}	.76 ^{***}	1.00	
17. 신명 결과	.46 ^{***}	.54 ^{***}	.47 ^{***}	.33 ^{***}	.47 ^{***}	.70 ^{***}	.73 ^{***}	.74 ^{***}	.79 ^{***}	.61 ^{***}	.59 ^{***}	.67 ^{***}	.90 ^{***}	.93 ^{***}	.92 ^{***}	.89 ^{***}	1.00

*** p<.001